

안보통일센터

한·중 수교 25년의 明暗 및 정책적 제언

2017. 8. 24



SECURITY
FOCUS

안보포커스

1. 한중관계 주요 연혁

시기	국가원수		주요연혁
	한국	중국	
1990년대	노태우	양상쿤	1992. 8. 한·중 수교 (우호협력 관계 구축)
	김영삼	장쩌민	1993. 11. 한·중 정상회담
	김대중		1998. 11. 김대중대통령 방중,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00년대	노무현	후진타오	2003. 7. 노무현대통령 방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이명박		2008. 5. 이명박대통령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2008. 12.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2012. 11. RCEP, 한·중·일 FTA 협상 개시
2013년~	박근혜	시진핑	2015. 3. 한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
			2015. 12. 한·중 FTA 발효
			2016. 7.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발표
	문재인	시진핑	2017. 7. 한·중 정상회담(G20)

2. 한중관계의 빛[明]

□ 양국관계 격상

- 199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 경제 · 산업 협력 확대

- 한·중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2008)과 FTA 발효(2015.12)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통화스와프) 2008년 32조원(1,800억 위안) 규모로 처음 체결 → 2011년 재협상을 통해 64조원(3,600억 위안)으로 확대, 2014년에 3년 재연장 합의
 -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통화스와프 중 최대 규모
 - (한·중 FTA) 역대 최대품목의 원산지 인정하며 양국간 상품교역 확대 기여, 향후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 더욱 확대 전망

- 교역 확대(2016년 기준)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
 - 양국 교역규모,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16년 2,114억 달러로 33배 증가
 -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는 375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대비 42% 차지

- 양국 정부는 한·중 산업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종 산업협력을 위한 합의 지속 추진, 한·중 산업협력 크게 확대

- 한·중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및 분업구조 구축으로 한국의 對중국 무역 · 투자 큰 발전, 이를 바탕으로 금융 · 통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

※ 다만, 중국의 수입대체전략 추진 및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기존 협력모델은 다양한 과제에 직면

□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 심화 발전

- 정당한 교류, 사회·문화·체육 교류, 군사교류 등 지속
- 한국과 중국을 오고 간 양국 국민수 1,100만명, 1992년 대비 120배 증가

3. 한중관계의 그림자[暗]

□ 갈등요인의 불씨 ‘사드문제’

- 한반도 사드 배치가 현재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자 어려운 문제
- 현재 한중관계는 물러설 수 없는 ‘변곡점’ 위에서 反中·反韓 국민감정 초래
- 그동안 쌓아온 경제협력의 성과가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

□ 한국의 對중국 경제의존 심각

- 25년간 對중국 수출 50배 성장, ‘차이나머니’의 對한국 투자 2천배 증가
- ‘한 바구니 속 계란’, 중국경제 충격이 한국에 고스란히 전달

□ 中 군사굴기(軍事崛起), 중국의 ‘코리아 패싱’

- 베트남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인도와 국경 분쟁 등으로 한·중 수교 공동행사 의도적 ‘패싱’
- 중국은 수교 25주년보다 ‘사드 철회’ 및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요구

4. 정책적 제언

□ 한·중 수교 25주년 계기, 긴 호흡으로 양국관계 발전 모색

- 한·중 수교 25주년은 우리가 당당한 외교와 함께 중국과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갈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음
- 최근 한·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對韓 전략에 대한 냉철한 분석·반성과 함께 미·중 파워게임의 흐름을 잘 읽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함

- 미·중 갈등구조 속에서 사드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 모색 시급
- 다자간 관계 재정립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중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긴 호흡으로 다양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임

□ 한·중 경제협력의 新패러다임 필요

- ‘넥스트 차이나’ 전략을 통해 아세안국가와 인도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나 신흥시장의 중국 대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對중국 전략의 쇄신을 통해 중국內 新성장분야 개척 중요
- 더구나 올해가 양국 경제관계가 한·중 수교 이래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한 ‘역사적 변곡점(vintage year)’인 만큼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새로운 전략 필요
- 한·중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으로,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新통상관계 구축 ▲對中 투자의 新모멘텀 창출 및 상호투자 확대 ▲위안화 허브전략 추진 및 AIIB를 통한 금융협력 강화 ▲정부간 교류 확대 및 국가전략 협력방안 모색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

□ 黨 차원의 對中외교 활성화

-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중국이 中華的 朝貢外交의 기회로 이용했음에 유의, 당 차원에서 中共黨의 합당한 카운터파트를 선정하여 ‘黨대黨’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준비
- ※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초까지 3차례에 걸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방중에 대해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방중이라며 대대적 환대
- 아울러, 黨과 민간으로 구성된 ‘對중국 공공외교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검토